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sup>28</sup>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sup>29</sup>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sup>30</sup>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sup>31</sup>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sup>32</sup>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sup>33</sup>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sup>34</sup>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sup>35</sup>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

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sup>36</sup>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눅9:28-36)

사람들처럼 주님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셨지만, 주님의 경우는 특별히 처녀 마리아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주님의 거듭나심의 경우는 곧 신성(*Divine*)이 되심이셨는데요,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주님 안에 계셨으며, 주님 자신이셨던, 생명에 속한 본질 그 자체(*the very being of life*)이신 분입니다. 그 결과, 둘 사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주님은 이를 위해 신성(*the Divine essence*, 신적 본성)을 인성(*the human essence*, 인간적 본성)과, 그리고 인성을 신성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AC.2798:2) *That he was born of the virgin Mary is known, yet as another man; but when he was born again, or became D*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ivine, it was from Jehovah who was in him, and who was himself as to the very being of life. The union of the Divine and the human essence was effected mutually and reciprocally, so that he united to the human and the human to the Divine. (AC.2798: 2)*

이 내용은 스페텐보리 저,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tia, 아르카나 코엘레스티아, 창세기, 출애굽기 속뜻 주석) 2798번 글 두 번째 항 인용이며, 이 글은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Abraham took the wood of the burnt offering, and laid it upon Isaac his son.)에 관한 속뜻 주석입니다.

지난주에 교인 한 분이 어떤 개신교회 목사님의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나의 종교는

교리나 예배가 아니라 가슴에 불타오르는 예수의 사랑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지 교리나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얼핏 보면 감동적인 글 같은데 그러나 좀 더 읽어보면, 전혀 아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심인지는 알겠으나 사실은 위험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교리 없이 사랑만 주장하는 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느, ‘오직 믿음’ 주장만 큼이나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각자가 믿는 신앙의 진리이며, 사랑은 그 교리, 그 신앙에 따른 삶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는 교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고, 신앙과 신앙에 따른 삶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쪽 뺨을 때리면 나머지 한쪽도 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곧 겉뜻일 뿐이며 진정한 진리는 아닙니다.

※ ‘진정한 진리’란 말씀의 겉뜻과 속뜻이 하나 된, 연결된 진리,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말씀의 겉뜻에 선이신 주님이 임하신 진리, 선과 진리가 결합한 진리, 선의 모습으로 나타난, 실현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쪽 진리를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랬다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 또는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목적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사랑, 사랑하는 것은 자칫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랑은 때로는 이웃을 태우고, 자기 자신도 태우는 위험한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 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수준(?), 말씀 역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과 같은 말씀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28</sup>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유독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오르신 까닭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표상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진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신앙(faith)을, 야고보는 이웃사랑(charity)을, 그리고 요한은 이웃사랑의 삶(the works of charity)을 각각 가리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표상되는 신앙은 신앙 따로, 체어리티 따로가 아닌, 체어리티의 삶이 함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말씀이 주님께 의해 더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란, 단순히 지식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과 체어리티, 곧 선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산은 사랑과 상응합니다.

**<sup>29</sup>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말씀에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기도란, 주님이 주님 아닌 다른 어떤 신(神)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성(Human)이 내면에 있는 여호와의 신성(Divine)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입으신 인성은 불완전한 인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불완전한 인성을 거룩하고 완전한 인성으로 만드셔야 했는데, 그래야 주님의 인성과 당신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성이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

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안의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하나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친히 밟으신 그 과정에서 지옥과의 필연적인 싸움이 있으셨는데, 주님은 그 싸움을 내면에 있는 신성과의 대화, 곧 기도를 통해 이기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건 신앙인들에게 있는 말씀의 외적 진리, 즉 글자의 뜻, 겉 뜻이 내적 진리, 곧 속뜻과 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글자의 뜻과 내적 진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 없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능력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의 유혹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적 진리와 연결되지 않은, 말씀의 글자의 뜻이 달빛 같은 어두운 진리라면, 내적 진리와 연결된, 말씀의 글자의 뜻은 한낮 태양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내적 진리와 연결되는 순간이며, 진정한 깨달음 가운데 있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말씀의 글자의 뜻은 어두운 진리, 흐리고 모호한 진리가 아니고, 주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빛나는 진리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식으로 내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0절과 31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sup>30</sup>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sup>31</sup>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여기서 모세는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말씀, 즉 모세 오경을 말하며,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뜻합니다.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은 모두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말씀’(The Word)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속뜻, 곧 아르카나가 들어 있어야 하며,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과 수, 샷,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시, 사, 렘, 애, 겔, 단, 호, 율, 암, 읍, 은, 미, 나,

합, 습, 학, 습, 말 등 29권이며, 신약에서는 사 복음과 계시록 등 5권을 말합니다. 아르카나는 오직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모세,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 하는 것은 글자의 뜻을 통해 내적 진리가 나타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영광은 곧 내적 진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모세, 엘리야는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장차 죽임 당하실 것에 관해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임 당하신다는 것은 글자의 뜻 그대로 이해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이 말씀을 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내적 진리의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이 죽임 당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교회의 마지막 때, 믿는다고 하는 자들, 신앙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말씀이 파괴되는 걸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이해합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신앙인이라는 자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마음대로, 즉 자기들의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짐작하고 추론해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은 수없이 삶의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신앙만 가르치시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sup>9</sup>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등을 인용, 삶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가르칩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으로라야, 즉 선을 동반한 진리이신 주님의 임재라야 악을 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거나 느낍니다. 새 교회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즉 선이 수반되지 않은 겉뜻 진리만 가지고도 지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신앙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날 때, 지옥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다 가르칩니다. 바로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만 좇을 때,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아직 잠자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靈眼)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그들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적 진리를 보는 순간입니다.

<sup>32</sup>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말씀을 통한 내적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 이것을 우리는 ‘개안’(開眼), ‘눈이 밝아짐’(enlightenment), ‘영안(靈眼)이 열림’ 등으로 표현하지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과 모세, 엘리야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내적 진리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말합니다.

<sup>33</sup>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적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말입니다. 내적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토록 좋은 이유는, 그 진리 안에 선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초막(tabernacle)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합니다. 초막은 교회를 나타내거나 교회의 선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선은 선인데 특별히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그냥 착한 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있어야 하고, 진리 또는 교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 선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해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sup>34</sup>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sup>35</sup>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때 구름이 물러와 그들을 덮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사랑, 즉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를, 아들이라고 할 때는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 곧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인간들처럼 자녀를 낳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들은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 곧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그 빛을 뜻합니다. 그러면 구름은 무엇일까요? 구름은 말씀의 글자의 뜻을 나타냅니다. 말씀의 글자의 뜻은 내적 진리에 비하면 그렇게 명료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뜻을 주신 까닭은 인간이 몸 안에 있을 동안은 내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 눈높이, 신앙 역량에 맞추어서 진리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글자의 뜻이고, 구름으로 표상하신 진리입니다. 그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항상 내적 진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적 진리를 잠깐잠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본 다음에 바로 구름이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 진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의 글자의 뜻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글자의 뜻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순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인의 내면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개 교회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여 개인의 참신앙으로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 진리에다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는 것이며, 그 상태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게으름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일을 바로 해야 하는데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도 말씀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확고하게 믿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참 신앙, 참 믿음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고집할 때는 오류가 있어도 주님께서 고쳐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고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지성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걸 거절,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진리란 이런 것이다, 진리란 저런 것이다’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성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적 진리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변화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어느 순간 내적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 또는 믿음은, 신앙은 그런 식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진리를 알았으면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리가 마치 자기 몸의 일부처럼 될 때, 진리를 행하면서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저항이 없을 때, 마치 대나무에 마디가 하나 생기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진리의 마디가 하나 생깁니다. 그

눅9:28-36

‘우리에게도 주님의 변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시려면’

렇게 하나의 진리가 완성되는 것이 일곱 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팔 일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실천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팔 일째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진리 실천하는 이 ‘팔 일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따라 진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팔 일째’가 됩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up>12</sup>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sup>13</sup>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1:12-13)

아멘

원본

2019-05-26(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21일(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